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06호 1판 (음력 9월 1일)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국민주권 시대 열었지만 기득권 청산 아직 멀었다

촛불집회 1주년

탄핵·정권교체 끌어내
'적폐 청산' 변화의 바람
선거제도 개혁·개헌 과제

촛불집회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2만여명의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관련기사 3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첫 촛불집회였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고쳐줬다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첫 집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다시 대국민 사과담화를 내놨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거의 매주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 가득 찼다. 첫 집회부터 대선 직전인 4월29일 23차 집회까지 모두 1684만 8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촛불을 든 국민의 힘은 거셌다. 비폭력적 수단으로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로 이끌었고 급기야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만들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수감과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대선 결과,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몰락하고 개혁정부가 탄생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 줬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다. 전혀 피를 보지 않고 혁명적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명예혁명'에 견주기도 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정치적 자각을 확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은 국정 농단에 대한 허탈감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주권자로서 주체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8월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 예를 들었다.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에 정책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이다. 벌써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중심에서 활동한 수많은 인사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뤄진 수많은 몰상식적 일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란 지적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 등 낡은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지난 3월 펴낸 책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에서 "촛불에 참여한 많은 시민이 바란 것은 단순한 박근혜의 물리적 퇴진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였다"고 썼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미완의 촛불혁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도 "1000만 촛불의 기적은 한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광장민주주의'가 아직 '현장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을 처연하게 돌아보게 한다"며 "우리는 '광장'에서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이뤘지만, 정작 실제 삶이 영위되는 '현장'에서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민주적 일상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혁명의 성공이란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함평 국화축제 '국화 광화문' 함평 국화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함평군 엑스포공원에서 활짝 핀 가을국화를 배경으로 유치원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번 함평 국화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린다. /함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에 5·18 희생자 12명 암매장 추정

5·18재단 입수 메모서 확인
담장~울타리 언덕 장소 지목

유력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꼽힌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희생자 12명이 암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력한 암매장 제보자의 메모에 적힌 숫자로 발굴을 앞두고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 희생자 인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19일 5·18기념재단은 1980년 5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3공수여단 지휘관이 작성한 약도와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옛 교도소 담장 밖을 유력한 암매장 장소로 지목했다.

발굴예정인 암매장지에 5·18 당시 사망자 12명이 묻혀있다는 내용은 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약도에 메모 형식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공수 여단 부대원이 약도에서 지목한 장소는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가 '중장비로 땅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지목한 곳과 같은 장소다. 이 재소자는 "5·18 때 교도소 옥상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주위를 살폈는데 담장 너머에서 굴삭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재단은 해당 장소에서 계엄군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시신을 암매장했다면 땅을 깊게 파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해 발굴 범위와 깊이를 정할 계획이다. 시신 확인을 위해 첨단 장비도 동원할 계획이다. 재단이 파악한 암매장 추정지는 옛 교도소 담장과 철제 울타리 사이 언덕으로, 교도관들의 순찰 외에는 발길이 없었던 곳이다.

제보자는 철제 울타리가 없었다고 기억하며 재단은 현재 지형 변화를 설명해 줄 근무자들을 수소문하고 있다.

5·18 당시 보안대 자료에 따르면 옛 교도소에서 억류당한 시민 28명이 숨졌는데 항쟁 후 임시매장된 형태로 발굴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하다. 5·18재단은 나머지 12명이 옛 교도소 일원에서 암매장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추가 발굴과 정확한 현장 고증을 위해 5·18 이후 지형 변화상을 확인할 기록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기념재단은 전날 현장조사에 참여한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과 구체적인 발굴 계획을 마련해 오는 23일께 언론에 발표할 방침이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37년 만에 행방불명자 발굴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약도를 입수한 경위와 세부 내용은 23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일시 ▶ 2017. 10. 22(일) 08:0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62)374-6685
대 촌 중 학 교
총동문회장 차 희 준

기준금리 1.25%…한은 13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지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세 차례 금통위에서 연거푸 동결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됐지만, 북한 리스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발목이 잡혔다.

한은은 지난번(8월)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추석 연휴 이후 지금껏 북한의 도발은 없었지만 북한 리스크가 진정됐다고 하기엔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매수세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3회 총동문체육대회
▪일 시 : 2017. 10. 21(토) 09:00
▪장 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전 화 : 062)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박 봉 순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40kg, 자동7단), 복합연비: 9.1km/ℓ(도심연비:8.3km/ℓ,고속도로연비: 10.4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192g/km · GLC 22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58kg, 자동9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심연비:11.6km/ℓ,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GLC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11.4km/ℓ,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51g/km ·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9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도심연비:7.5km/ℓ,고속도로연비: 9.0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17g/km · GLE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2,28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1km/ℓ(도심연비:10.4km/ℓ,고속도로연비: 12.2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GLE 350d 4MATIC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350kg, 자동9단), 복합연비: 9.7km/ℓ(도심연비:9.0km/ℓ,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200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520kg, 자동9단), 복합연비: 5.8km/ℓ(도심연비:5.2km/ℓ,고속도로연비: 6.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06g/km · GLE 350d 4MATIC Coupé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405kg, 자동9단), 복합연비: 10.1km/ℓ(도심연비:9.2km/ℓ,고속도로연비: 11.3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93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Coupé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465kg, 자동9단), 복합연비: 6.2km/ℓ(도심연비:5.4km/ℓ,고속도로연비: 7.5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89g/km · G 350d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7.7km/ℓ(도심연비:7.2km/ℓ,고속도로연비: 8.3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59g/km · Mercedes-AMG G 63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5.2km/ℓ(도심연비:4.8km/ℓ,고속도로연비: 5.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4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